

월요광장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

정체성 있는 도시 만들기

모 아파트 단지, 광장 등의 공통 요소를 갖춘 이른바 '일반 도시화' 되었다. 각각의 도시와 지역이 당연히 보

독일 동화 중 미하엘 엔데의 '모모'에서 회색 신사 집 단이 어느 날 도시에 등장한다. 매일 숫자가 불어나지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조금 더 의도적 이고 사람 냄새 나는 도시와 공간을 종종 목격하게 되

얼마 전 일본의 고도 교토를 다녀왔다. 일본 교토는 근대 도시로서의 변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역사

기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창조적 조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개관 이후 처음으로 전당장이 임 명되었다. 국립기관장의 임명이 보통 개관과 동시에

2023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는 1490억 원 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아시아문화전

이 모든 변화의 출발선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 별법'의 개정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왜곡 개정한

이 모든 변화의 출발선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 별법'의 개정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왜곡 개정한



이병훈
국회의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민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국립 아시아문화전

수필의 향기

큐피드의 화살

가 되어 있는 그 애 라켓. 그 라켓은 나를 보고 늘 사랑 해 말하는 것 같았고, 내 라켓 속 화살은 항상 그녀 하

친구들이 귀가한 어느 날, 탁구대 위에 라켓 하나가 보였다. 그 애 손때가 묻은 라켓이었다. 땀내도 났다. 가만히 라켓을 만져 보고 가슴에 품어도 보였다. 그 애

다음날 아이들이 라켓을 둘러싸고 신나게 킨들거리 고 있었다. 난 내가 했다고 섣뽁 나서지 못했다. 순간

그 뒤 두 녀석의 연애는 더 기정사실화되었다. 쟁쟁 한 나를 본 그 애는 큐피드의 화살이 박힌 라켓을 흔들

'저 화살은 내가 쏜 건데...' 그 뒤로 난 탁구를 그만두었다. 무얼 하나 포기하니, 할 게 공부밖에 없었다. 운동에 대한 열등감이었는지

30여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코치 생활을 접고 최 근에 고향에 돌아와 탁구장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

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설명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나서서 행정적

광주도 추수 제한 폐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TV에서 전문가와 행정이 각자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도 나왔다. 시민단체나 건

최근 광주 동구에서 특정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되어 동구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 시작 되었다.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일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0년이 소요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던 때는 법에 규정한 법안화까지 5년의 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법

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 까지 법안 소위 두 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네 차례, 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은 아시아문화전 당의 국가기관화, 효력 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 아

이제 각 추진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과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남았다. 우선 전당은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비 매칭

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난 난 화분 하나를 들고 탁구장으로 갔다. 제법 큰 탁구장이었다.

나를 본 그녀가 아니 아홉마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 다. 그리고 내가 화분인양 가볍게 인어 주며 톡톡탁탁

"남편, 아니 당호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 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좀 놀란 듯 했다. 졸업 후 만난 적이 없다는 그녀

"그럼 여태 혼자 산거야?" 탁구는 공을 주고받는 경기이다. 사랑도 비슷하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애 말대로

조금 아니 많이 성공했다. 호흡이 잘 맞아서 둘은 결혼 할 거라고 확신했다. 내게 그녀의 공이 와도 난 외면 했다.

나오는데 보니 탁구장 간판이 '사랑의 큐피드'였다. 그녀는 어쩔 그때 내가 쓴 화살을 맞고 여대 화살의

社說

지방 활성화 위해 '복수 주소제' 도입 검토해야

가파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복수 주소제' 도입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지방교부금 배분도 이를 감안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일주일의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 머무는 '4도(都) 3촌(村)'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도시민의 주말 주택(세컨드 하우스)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복수 주소

이 제도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나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지방의 급속한 인구 감소세를 일정 부분 억제할

장흥 고등어 선단 유치·무산김 인증 기대 크다

정남진 장흥이 전남의 새로운 어업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등어와 무산김을 양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장흥군은 최근 노력형 '고등어 선단 월드 체인' (저온 유통 체제) 사업을 유치 해 오는 11월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장흥군수협은 이달 말부터 급냉·제빙 시설, 선별장, 피쉬 펌프, 정화조, 인양기 등 본격적인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선다. 국내 고등어 조업 어장은 제주도·거문도 해역에 80%가 있는데 월드 체인 구축으로 제주에서 장흥까지 운반 시간을 기존 열 시간에서 네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선

바다가 없는 경북 안동이 '간고등어'로 유명한 것처럼 장흥이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고등어 상품 가공·유통 메카로 도약 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장흥군은 이 사업

수 있는 데다, 이중 주소지를 가진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두 곳에 균등 배분하고,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금 배분도 이를 감안 하도록 하면 지방 재정 확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로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간 괴리가 큰 지역이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인구는 189만 여명으로 전국에서 아홉 번째였지만 연간 관광객 5079만여 명을 포함한 체류 인구는 5268만여 명으로 두 번째였다.

복수 국적도 허용되는 마당에 복수 주소라고 안 될 이유는 없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들과 함께 복수 주소제 도입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으로 일자리 창출 등 연간 2000억 원대 경제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흥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무산 김'은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2737ha)에 이어 세계 최초 수산물양식관리협회(ASC) 국제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어민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양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게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두 사업의 성과 덕분에 장흥군은 친환경 어업 생산지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의 소득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생산·가공·유통·체제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민 소득 향상에 발을 댄고 나선 근과 어민들의 노고 덕분이다.

이제 여건은 갖춰졌고 사업 성공의 방향타는 장흥군의 손에 쥐여졌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장흥이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업 생산기지로 부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광주·전남 고대사의 뿌리인 마한(馬韓)은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매우 인색하게 소개된다. 백제사를 설명하는 항목에 서너 줄 기술돼 있다. 백제의 영역 확장 과정에서 흡수, 병합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중학생 '역사' 교과서 백제편에는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마한의 남은 세력을 복속해 남해안까지 진출했고, 가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한다. 고교 '한국사'도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마한을 복속하고, 북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승리했다"고 기술한다.

마한과 교과서

교과서의 '근초고왕 마한 병합설'은 오래전 통설로서 지위를 잃은 이병도 박사의 견해다. 그는 1959년 일본 서기 신공기 49년조를 토대로 백제가 마한을 병합한 시기를 근초고왕 24년(369년)으로 봤고 공략 지역도 전남 지역 마한 잔읍(殘邑)으로 해석했다.

통설로 굳어진 마한 병합설은 1996년 북암리 3호분 96석실의 발굴로 깨졌다. 옹관묘를 주 묘제로 사용하던 영산강 토착 세력이 6세기 초까지 전통을 유지하며 독자 발전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학계에서도 통설의 취약성을 슬하게 지적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역사 교과서에 가려는 통설로서 지위를 잃은 세 쪽 반량으로 소개돼

가야사에 대한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지 만, 영산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 피웠던 고대 해상왕국 마한은 단 세 줄만 기록됐다"는 것이다. 지역 고대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체장의 노력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전남도는 마한사 교과용 인정 도서 편찬을 위해 기초 연구 용역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남도의 고대사 재조명 사업이 교과서에 수록된 마한사의 오류를 바로 잡는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한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